

6

실전 모의 증례

상황
지침

- 5세 남아 김혁준의 아버지가 아이가 몸에 멍이 들었다며 내원하였다(현재 아이는 CT 촬영을 위해 진정 중).

[활력 징후] 혈압 : 90/60mmHg

맥박 : 80회/분

호흡 : 20회/분

체온 : 36.5℃

[응시자는 이 환자에게] 증상과 관련된 병력을 청취하고
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환자와 논의하시오.

환자
교육

- 향후 계획
 1. 비밀 보장과 안심시키기
 2. 폭력이 부당함을 인지시킴
 3. 경찰에 신고
 4. 보호시설이나 사회기관 소개
 5.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 권유

시험관련
코멘트

가정 폭력 중 아동 폭력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 의무자가 의료인이므로 아동 학대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관에게 신고(1577-1391)해야 합니다.

보통 아동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감싸기 위해 2~3번의 비밀 보장과 안심시키기를 해 줘야 문진이 가능합니다. 또한 신고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폭력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게 하도록 유도합니다.

성별/나이	남아/5세
주소	“멍과 새골 골절”
O	오늘 아침 발견
L	왼팔에 멍이 잔뜩 있으며, 왼쪽 새골 골절
D	-
Co	새엄마가 그런 것 같음,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옴 집안 일이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한 것은 처음
Ex	처음 알게된 것은 6개월 전
C	[신체적] 딸아이 말로는 발로도 차고 빗자루로 때린다고 함(+) [정서적] 욕도 가끔 하고 심하게 말하는 것 같음(+) [성적] 성기 부분을 아파하거나 잘 못 걸거나 하는 건 없음(-) [경제적] - [방임] 식사, 목욕, 옷 입기 등은 그래도 챙겨주는 것 같음(-)
A	우울/불안/수면장애(+/-/-) 아이가 요즘 유치원에서 말수가 줄고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으며, 멍 때리고 있다고 들음 자살 사고/계획/시도/타살 사고(-/-/-/-)
F	아내가 원래 육하는 성격인데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잘 보채서 짜증을 냄, 친딸인 둘째에게는 잘 대하는 것 같음 아내가 술, 담배는 조금씩 하지만 다른 약물 복용은 없음
E	그동안 아픈 적이 없어서 병원에 온 것은 처음
외	-
과	아이 출생 당시 정상 체중, 특별한 문제없이 태어남, 신생아 대사 이상검사, 유전자 이상 검사 등 문제 없었음, 자라면서 성장, 발달 과정에서 문제 없었음
약	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새엄마 앞에서는 암전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, 딱히 아이를 맡길만한 곳은 없음
사	-
가	전처 자식인 아들과 3년 전에 재혼한 현재 부인의 자식인 딸까지 해서 4명이 같이 살 친척들 모두 멀리 살고, 친한 이웃은 없으며, 전처와 이혼한 이후 연락 안하고 지냄

질문	“경찰 신고까지 해야 되나요?”
특이 사항	새골 골절과 함께 팔 전체가 시퍼렇게 멎은 사진 제시됨